

찾아 오시는 하나님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개역, 창세기 3:1~12]

성

도 여러분, 일생 중에서 가장 기뻐던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했을 때일 수도 있고 오래도록 고생한 끝에 집을 샀을 때일 수도 있죠.

저의 부모님이 오래도록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집을 산 것도 아니고 좀 넓은 전세방 하나 얻어 가지고 참 좋아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참 넓은 방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다섯 형제가 단칸방에 살았거든요. 다섯명 놓고 양쪽에 어른 두 명이 누우면 꼭 끼입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책상에 앉으면 차라리 조금 편했어요. 그런 방에서 오래도록 지냈는데 전세방이라도 넓은 방이 그렇게 소원이셨던 모양이에요. 방이 넓으니까 이불을 펴고 깎 필요 없이 '야, 정말 좋다!' 하시면서 누워서 데굴데굴 구르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이야 다르겠지만 갖고 싶어 소원하다가 가졌을 때에 그 짜릿한 기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기억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기쁨들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지는 못합니다. 새 집을 사서 들어가면 몇 년쯤 기분이 좋을까요? 결혼을 하면 그 기쁨이 얼마쯤 갑니까? 통계적으로 3년쯤 간다고 그래요. 아무리 불꽃같은 사랑도 그대로 두면 3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는 않습니다.

사진기가 귀하던 시절에 사진기 하나 샀으면 하고 버르고 별러서 하나 샀습니다. 그 때 태어난 아이는 사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번에 태어난 아이는 사진이 별로 없습니다. 없다가 하나 사면 좋아서 마구 찍어대는데 조금만 지나면 시들해지면서 카메라 두고도 잘 안 찍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기쁨이 그렇게 왔다가 이내 시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온 몸으로 부르짖은 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생을 바쳐 가면서 부르짖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제가 군에서 녹막염을 앓았는데 후송되어 가는 곳마다 물어요. 누구한테 맞았냐고요. 녹막염이 맞거나 무리하게 운동을 해서 생기는 병인 모양입니다. 병이 날만큼 맞은 적은 없어요. 5군단 본부대에 근무했었는데 부대에서 밤낮없이 사무만 보다가 전방에 훈련을 나갔습니다. 19일간 이쪽 산에서 저쪽 산으로 토치카를 만들 자갈을 날랐습니다. 군대 일이라는 것이 다 그렇듯이 횡수만 채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산에서 자갈을 지고 저쪽 산으로 가는 도중에 고의로 거의 다 흘려버립니다. 그래야 가볍거든요. 줄줄줄 흘려 버리고 절반도 안되는 걸 갖다놓고 왔다는 확인만 받고 횡수만 채우는 식인데 전 그 산을 왔다갔다 하면서 자갈을 하나도 흘리지 않고 다 날랐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학생활을 마칠 때 내게 참 기쁨이 있었는데 그렇게 기쁨을 누리며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 때 누군가가 이 산에서 이 고생을 했을 것이다. 이제는 내가 갚아야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열심히 날랐죠. 그

게 좀 무리가 돼서 늑막염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 때에 기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고 다녔는데 그 기쁨이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어디에서 오는 기쁨일까요? 기뻐던 일만 쪽 나열하면 저도 남 못지 않게 기쁜 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세월이 가도 식지 않고 끝없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안겨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모든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을 아는 기쁨입니다. 그 위에 작은 기쁨들이 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은 여러분 평생에 끊이지 않는 기쁨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많은 재앙이 떨어졌습니다. 그 재앙을 피부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늘 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에 왜 그런 재앙이 떨어졌을까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리라'고 합니다. 또 한가지는 이런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인들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모질게 재앙을 두들겨 맞는 원인을 찾으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재앙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를 읽으실 때 이 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에서 이런 예를 찾아봅시다. 에스겔 6장 7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 중에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말하자면 너희를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는 이유가 너희가 나로 하나님인줄 알게 하려함이라는 겁니다. 10절 보십시오. '그 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줄 알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4절 끝에도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줄 알리라'고 합니다. 6장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줄 알리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7장에도 3번이 나옵니다. 12장에도 3번 나옵니다. 매 장마다 여호와인줄 알리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전체에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표현이 몇 번쯤 나오는지 횡수를 헤아리면서 읽어보십시오. 에스겔서를 읽는 재미가 날 겁니다.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일, 이십 개가 아닙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에스겔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당시의 모든 재앙과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인생이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인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강렬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노래합니다. 호세아에게 있어서 단 한가지의 소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피땀한 절규처럼 외치는 것이 제발 너희가 하나님을 알라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들의 그 외침은 바로 하나님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복을 다 누리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목놓아 외쳤던 소리가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섬겨 왔던 여러 가지 신들은 실체가 없습니다. 도대체 뭘 하는 분인지, 어떤 분인지, 어떤 인격을 갖추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거의 사랑의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시는 것은 저하고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란 뜻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신 분은 간이 굉장히 크신 분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공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지은 사람에게 반드시 벌주는 분이더라는 말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공의라는 말은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함부로 쓰지는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잘못하면 눈곱만큼도 예누리 없이 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난 하나님이 와도 별 문제 없다 싶으신 분은 애용하십시오.

교통위반으로 경찰에게 적발이 되었을 때 적당히 봐 주는 경찰이 좋아요 아니면 악착같이 스티커 끊는 분이 좋아요? 악착같이 끊는 경찰이 공의로운 경찰입니다. 끊기고 돌아가면서 좋은 말 아무도 안 하는 것 같더군요. 공의로운 경찰 보고도 그렇게 투덜대면 공의로운 하나님에게 걸리면 약도 없습니다. 그건 무서운 말입니다.

흔히 구약을 잘 아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다를까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다를 리가 없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매를 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매를 들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옛날 표현으로 국민학교 5학년 때 다니던 학교에 6학년 담임이 세 분 계셨습니다. 세 분 중에 어느 한 분이 무섭다고 소문이 났어요. 저 선생님한테 걸리면 6학년 올라가서 뼈도 못 추린다는 소문이 자자해서 그 반에 배당되었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지나고 보니까 아주 좋은 분이예요. 혹 심하게 매를 드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무섭다고 소문이 자자했는데 그 무섭다고 하는 분의 마음을 알고 나니 무서운 분이 아니더라구요.

제 친구가 ‘야, 너도 학교가서 애들 패냐?’고 물어요. ‘안 켈 것 같냐?’ ‘안 켈 것 같대요’ 저도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천사표였지만 잘 모르는 학생들 편에서는 모질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만 되어도 몸으로 때우겠다고 버티는 애들이 있습니다. 여름 방학 숙제를 ‘한 번 되게 맞으면 끝나지 뭐 굳이 방학동안 내내 애쓸 것 있냐?’ 이런 애들이 중학교 1학년에도 있어요. 여름방학 숙제 검사를 한 후에 해오지 않으면 되게 혼을 내고는 보통 그걸로 끝나요.

어느 해 심한 너석이 한 번 걸렸어요. 실컷 맞고 ‘일주일 기한 줄테니까 다음 주 토요일까지 해와!’ 일주일 뒤에 다시 불렀습니다. 여전히 손도 까딱 안하고 그냥 와요. 그래서 또 두들겼죠. 그 다음 일주일 기한 주고 또 부르고... 여름 방학 숙제가 12월 달에 끝났습니다. 이 너석이 한 번 꺾이더니 그 다음부터는 숙제를 해와요. ‘아이고, 저 선생님한테는 안되겠다’ 이런 아이들일수록 짐작게 대해서는 일이 안됩니다. 일단 꺾은 다음에 부드럽게 다독여 주어야지 처음부터 상담으로 들어가면 거꾸로 선생을 갖고 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너석을 매 주일 불러서 두들기는 선생님 마음은 어떤지 아십니까? 속으로 빙니다. ‘야, 제발 좀 해 와라’ 그런데도 표정은 죽일 듯이 하고 덤비는 거죠. 그렇게 여름방학 숙제를 12월 달까지 끌고 가 보세요. 선생님도 참 힘든 일입니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니예요. 선생님이 더 이상 애살도 없고 ‘똥이 내 똥이냐? 산이 내 산이냐?’ 이런 마음이 들면 포기해 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매를 들고 야단치는 그 장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이 왜 그러느냐는 마음을 이해하면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노아 홍수 때 다들 죽고 노아만 살아났습니다. 노아가 살아난 이유가 뭘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러죠? 의인이었더라.

노아가 그 당시에 의인이었다면 노아 자신의 공로 같아 보이네요. 창세기 6장 8절을 한 번 봅시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다는 말씀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겠지만 이 구절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뜻인데 이 말은 우리 말로 약간 의역해서 뜻을 살려 놓은 것인데 아마 영어 성경 가진 분들은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더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멸하시려는, 이글이글 타는 그 분노의 눈빛 속에서 은혜의 빛을 노아가 봤다는 얘깁니다.

죽일 듯이 야단을 치는 그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눈 빛 속에 선생님이 정말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자신도 굉장히 가슴 아파 하면서 이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에 그 매가 두렵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두려워 떨 때에 혹시 그 속 한쪽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 하시면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 눈만 있으면 구약의 하나님도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그 분노에

이글거리는 눈빛을 보면서도 그 눈빛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슴아파 하시면서 힘들어 하고 계신다는 것을 노아는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아는 하나님을 잘 알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홍수 후에 다시는 이런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지개였죠? 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심판해도 사람들이 계속 악을 행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렇게 심판을 받았으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야 정상 아닐까요? 그렇게 심판이 끝난지 얼마되지 않아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럴 것을 아시면서도 심판을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왜요?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창 8:21). 어릴 때부터 악한 인간들을 일일이 심판했다가는 막말로 씨도 안 남겠다 그래서 심판을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무너뜨릴 때도 지진이나 태풍으로 몽개 버리지 않고 사람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공사는 중단시키는 절묘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다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매를 들고 치시는 그 하나님의 눈빛 속에서 하나님의 아픔을 노아는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본문에 하나님의 아픔이 어떻게 묻어나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저 인간들이 내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시험해 볼려고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었죠?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비유를 들겠습니다. 노예를 사랑하게 된 어떤 주인이 이 노예를 진짜 사랑하게 되면 노예를 노예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노예로 두고는 사랑이 안돼요. 그래서 노예에게 자유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동등한 교제가 가능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교제가 가능한 위치에 두려고 만든 것이 선악과입니다(자세한 것은 설교란의 '사랑에 눈먼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악용하고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버렸습니다. 떠나간 그 인간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누가 답답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과 그를 찾으려고 애쓰는 하나님과 누가 답답해요?

하나님이 답답해요.

완전히 배짱이네요! 옛날 우리 옆집 애가 아침에 아침 안 먹고 도망가면서 하는 소리가 이래요. '내, 밥 안 먹는다. 누가 답답한가 보자' 하고 학교 가더라구요. 밥 안 먹고 학교 가면 누가 답답합니까?

..... 지가 답답하죠.

질문이 어렵나요? 엄마가 답답하죠. 사랑하니까요. 애는 엄마의 사랑은 몰라도 자기가 아침을 먹지 않고 그냥 가면 엄마가 답답하다는 것은 압니다. 엄마가 '오냐, 니 답답지' 하고 내버려두나요? 기를 쓰고 붙잡으려고 쫓아가지요.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냥 놔두지 못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누가 답답한 겁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멀리 도망쳐 나간 이야기가 창세기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떨어져 가는 이야기가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누가 답답한지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더 답답해 합니다. 실제로 답답한 건 누구데요?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이 불쌍한 건데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진짜 답답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짐승보다 못한 자식들아(사 1:3)' 하나님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그렇게 철저히 배신하고 떠나갈 수 있는냐는 외침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마 아담과 하와는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입 한번 닦아버리면 '실마 하나님께서 아시겠나?'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셨죠? 하나님이 알기 전에 아담과 하와 자신들이 변해버린 겁니다. 그걸 따먹었더니 최초의 변화가 뭘니까? 부끄러움을 알았고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이게 예전에는 전혀 없던 겁니다. 이게 얼마만한 변화인지 우린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린 이미 버린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버려지기 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만한 변화인지 모르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부끄러움을 알았고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 이전엔 두려움이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그늘에 숨은 겁니다. 스스로 '따먹었습니다' 하고 자신도 모르게 공개하고 있는 겁

니다. 아담과 하와는 따먹는 순간에 자신들의 변화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알았을까요? 물어 보고 아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를 찾아오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독사발을 마시듯이 그 자리에서 탁 거꾸러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애들이 어디 갔지?' 모르는 척하고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먹었느냐고 확인을 합니다. 몰라서 확인합니까?

경찰서에 붙들려 있는 아이들 데리러 학부형과 간 적이 있습니다. 학부형들 모시고 경찰서에 아이들 찾으러 가보면 참 천태만상입니다. 어떤 엄마는 붙들고 하염없이 울어요. 좀 젊잖은 아버지는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딱 한마디 합니다. '너, 정말 그랬냐?' 몰라서 물을까요? 경찰서에 붙잡혀 있는 아이를 찾으러 가서 너 정말 그랬냐고 묻는 아버지의 심정을 알 것 같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 말 속에는 자식에 대한 잘못을 부모가 책임지겠다는 각오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상할 일 있으면 내가 변상하고 혹시 잘못된 것 있으면 내가 다 당하기로 작심하고 묻는 말입니다. 너 정말 그랬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적잖게 봤거든요. 옆에서 지켜 보기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정말 먹었냐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와서 아담에게 '먹었느냐? 왜 먹었느냐?' 하와에게 '네가 그랬느냐?' 꼬치꼬치 묻고 있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 버린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친히 찾으러 오셨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뭐 답답해서 금지된 과일을 먹고 도망가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셨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가장 큰 차이점 중의 하나입니다.

어느 깊은 산속에 은둔하고 있는 뛰어난 스승에게 한 수 배우려고 찾아갑니다. 찾아가 보면 처음부터 받아주는 경우가 잘 없죠. 문전박대를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오만 팔세를 받으면서 빌다시피 해 가지고 겨우 허락을 받습니다. '그 놈 참 능력은 별로 없어 보인다는 고집 하나는 쓸만하구나. 그럼 들어와 보아라' 간신히 허락을 받아도 몇 년 동안 청소나 하고 밥이나 하고 물만 기르고...

무예를 배우는 이야기나 다른 어떤 종교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를 써서 신을 찾아가고 스승을 찾아가입니다. 그런데 성경만 유독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건 아담과 하와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떤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가? 대체로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기습작전을 펴서 롯을 구출해 낸 사건 있죠. 구출해 내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께서 거기 나타나셔서 두려워말라 하시면서 위로하실까요? 기습작전을 펴서 작은 전투 하나는 이겼지만 그 많은 왕들 속에서 아브라함이 계속 버티어 낼 수 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하십니다. 친척이라고는 롯 하나를 데리고 이방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돌이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의지했던 롯이 자기를 떠나간 후에 얼마나 쓸쓸할까 싶을 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위로하시며 또 약속을 하십니다.

야곱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죠?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멀리 멀리 떠나가면서 들판에 외로이 누웠을 그 때에, 야곱이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리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며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하며 보호하며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죠.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고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공허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양떼나 치고 있던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 구해내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가라 가라 하고 이적을 행할 능력까지 주셔가면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고 할 때 모세는 예 하고 갔습니까? 아니요, 못한다고 얼마나 발뺌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던 그 모세를 억지로 쫓아내다 시피해서 백성을 이끌어내게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수 많은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위대한 스승님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절 제자로 삼아주시

오라고 한 제자가 누구입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예수님이 하나씩 하나씩 불러 모은 제자들입니다. 초대교회 기초를 놓았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전직 박해자입니다. 믿는 사람을 잡아죽이려고 살기 등등해서 설치던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해 버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미리 알고 이런 하나님 같으면 한 번 섬겨 봐야겠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아간 사람은 성경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 내려오셨고 스스로 나 이런 분이다 하고 소개해서 사람들이 알게 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잘 되짚어 보십시오.

여러분, 만물의 주인되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임금님이 아무도 몰래 날 만나러 왔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찾아오신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합니다. 에덴동산을 거닐며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네가 어디 있느냐고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니다. '하나님, 지금 예배시간인데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여기 있습니다' 이런 대답 안 하시도록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는 특별히 어떤 때 찾아오셨나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두려워 도망갈 그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내같이 이렇게 죄 많은 놈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때,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인간이 되겠느냐 싶을 그 때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는 성경하고 약간 다릅니다. 어디가 틀렸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오랜 여정 끝에 드디어 가나안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 것.

틀렸다고 말하기보다는 맞을 텐데요. 썩 잘한 것은 아니지만 대충 그렇게 살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잘 들어 보세요 어디가 틀렸나? '아브라함은 오랜 여행 끝에 드디어 가나안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가 틀렸죠?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그게 틀렸다고요? 답을 잘 하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단을 쌓았다고 하죠? 그냥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한마디가 더 붙어 있습니다. 나타나신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먼저 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을 하고 난 것을 보고 그 나타나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더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 아닙니다. 머나먼 고향을 떠나서 타국에 들어와서 이곳에서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있을 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귀중한 약속을 해 주시는 것에 감사해서 단을 쌓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나고 또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고 심지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 오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는 맨손으로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할 때마다 그 약속에 변함없이 빠지지 않고 들어있는 것이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후손은 누구를 겨냥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시면서 한 이야기를 잘 보면 그 이야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이걸 따먹고 범죄하므로 도망가지만 나는 어떻게든 이걸

원상 회복시키겠노라. 그걸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키겠노라는 각오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손에 독생자의 피를 들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문혀 들고 찾아와서 이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초청하는 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는 간단하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죠.

예수 믿어라!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만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이 약속, 이 초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수도 없이 찾아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좋은 방법인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경을 읽고 배우고 또 묵상하고 성경을 깨닫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초청에 응하는 것이죠.

우린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그 말 한마디가 확실한 고백이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될지 모릅니다. 모든 사소한 아픔이나 슬픔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이 말 한마디 속에 다 묻혀서 쓸려가 버리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이야기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부르죠? 아담이 볼 때 하와는 어떤 여자입니까? 아니, 어떤 사람입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하나님께서 처음 데리고 왔을 때 감탄을 하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대는 나의 엑기스라는 표현인 셈입니다.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뽑아서 만든 사람이니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라고 합니다.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아니, 그 말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뜻은 좋은 겁니다 나쁜 겁니다?

나쁘죠.

왜 나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 그러니까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고 은근슬쩍 돌려대는 겁니다. 아담이 볼 때는 어떤 여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 여자, 좋단 말입니까 싫단 말입니까? 거참 애매한 표현이죠. 둘이 쫓겨나가 살면서 하와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선악과를 따 먹여가지고 나를 이런 고생을 시키는 여자... 내 신세를 망하게 한 여자.

그러면 우리는 하와 할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무슨 생각합니까?

선악과 따 먹여가지고 우리 신세도 망쳐 놓은 할머니.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하나님은 하와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라고 볼까요? 하나님도 하와를 보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세계를 다 버려 놓은 여자로 볼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젠 뭘로 볼까요? 먹지 마라 한 것을 먹고 사고친 저 놈들. 그런 겁니다? '사고쳐서 일은 얼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매 맞고 쫓겨 나갈 형편에 처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인 아담과 하와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우리 신세 망쳐 놓은 어설픈 조상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면 우리도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다 망쳐 놓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건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왜 이 이야기를 끝에 덧붙이는지 짐작하시죠? 옆에 있는 형제를 한 번, 아니 옆에 있는 형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제일 밋생이, '아, 저 꼴 좀 안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형제를, 고개를 돌리지 마시고 생각만 하십시오. 아니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머리 속에만 넣어 놓으십시오. 그 밋생이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아뇨.

비록 능력은 없고 어설피기는 하고 맨날 빌빌거리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리켜 내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담이 좋은 때에는 내 뼈 중의 뼈요 살중의 살이라고 해놓고 사정이 달라졌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라고 하는 이런 못된 습성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담은 여전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아니 능력도 없고 열심도 없고 못나빠진 나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의 토대요 변하지 않는 행복의 원천입니다.